

2017년 지방직 9급 한국사(B책형) - 6월 17일 시행

해설 : 해동한국사 신영식 교수

문 1. 한반도 선사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석기시대 전기에는 주먹도끼와 스페찌르개 등이 사용되었다.
- ② 신석기시대 집터는 대부분 움집으로 바닥은 원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다.
- ③ 신석기시대 사람들은 조개류를 많이 먹었으며, 때로는 장식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 ④ 청동기시대의 전형적인 유물로는 비파형동검·붉은간토기·반달돌칼·홈자귀 등이 있다.

1. 정답 : ①

- ① 주먹도끼는 짐승을 사냥하고 가죽을 벗기며, 땅을 파서 풀이나 나무뿌리를 캐는 등 여러 용도에 사용하는 만능 석기로 전기 구석기 시대에 주로 이용되었다. 스페찌르개는 주로 구석기 시대 후기에 사용되었는데, 스페(자루 속에 박히는 부분)가 달린 찌르개로서, 창을 기능으로 하였다.
- ② 신석기 시대 집터는 대개 움집 자리로, 바닥은 원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다. 움집의 중앙에는 불씨를 보관하거나 취사와 난방을 위한 화덕이 위치하였다. ③ 신석기 시대에는 농경이 시작되었으나 아직까지 주요 식재료는 어패류였으며, 조개껍데기 가면, 조가비 또는 짐승의 뼈나 이빨로 만든 치레걸이 등의 장신구를 제작하였다. ④ 이 시기의 전형적인 유물로는 반달 돌칼, 바퀴날 도끼, 홈자귀 등의 석기와 비파형 동검, 거친무늬 거울 등의 청동기, 그리고 미송리식 토기, 민무늬 토기, 붉은 간토기 등의 토기가 있다.

문 2. 다음 자료를 쓴 역사가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역사란 무엇이뇨. 인류 사회의 아와 비아의 투쟁이 시간부터 발전하며 공간부터 확대하는 심적 활동의 상태의 기록이니, 세계사라 하면 세계 인류의 그리되어 온 상태의 기록이며, 조선사라 하면 조선 민족의 그리되어 온 상태의 기록이니라.

- ① 『여유당전서』를 발간하여 조선후기 실학자들을 재평가하였다.
- ② 을지문덕, 최영, 이순신 등 애국명장의 전기를 써서 애국심을 고취하였다.
- ③ 『조선사회경제사』를 저술하여 세계사적 보편성 속에서 한국사를 해석하였다.
- ④ '5천 년간 조선의 얼'이라는 글을 동아일보에 연재하여 민족 정신을 고취하였다.

2. 정답 : ②

제시된 자료는 신채호가 저술한 『조선상고사』이다.

- ② 신채호는 역사 전기 소설을 통해 국민들에게 애국 사상과 독립심을 고취하기 위해 을지문덕, 최영, 이순신 등의 영웅 전기 소설을 저술하였다.
- ①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 등은 조선학 운동의 일환으로 정약용의 『여유당전서』를 간행하는 등 조선 후기 실학자들을 재평가하였다. ③ 백남운은 『조선사회경제사』를 저술하여

한국사가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 법칙에 입각하여 발전하였음을 강조하면서 식민주의 사관의 정체성 이론을 반박하였다. ④ ‘5,000년간 조선의 얼’은 정인보의 저서로서, 이 책에서 그는 조선 역사 연구의 근본을 ‘단군 조 이래 5,000년간 면면히 흘러 온 얼’에서 찾고 조선 역사는 곧 한민족의 ‘얼의 역사’임을 강조하였다.

문 3. 군사제도가 실시된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중앙	지방
ㄱ	9서당	10정
ㄴ	5위	진관 체제
ㄷ	5군영	속오군
ㄹ	2군과 6위	주현군과 주진군

- ① ㄱ→ㄴ→ㄷ→ㄹ
- ② ㄱ→ㄹ→ㄴ→ㄷ
- ③ ㄴ→ㄱ→ㄷ→ㄹ
- ④ ㄴ→ㄹ→ㄱ→ㄷ

3. 정답 : ②

ㄱ. 중앙군으로 9서당, 지방에 10정을 배치한 것은 통일신라의 군사 제도이다. ㄹ. 중앙군을 2군 6위로 편제하고 지방에 주현군과 주진군을 둔 것은 고려의 군사 제도이다. ㄴ. 중앙군으로 5위를 두고 지방의 방어체제를 진관 체제로 정비한 것은 조선 세조 이후의 군사제도이다. ㄷ. 양반 이후 수도와 외곽을 방어하기 위해 5군영을 정비하고, 임진왜란 중 양반에서부터 천민으로 편성된 속오군을 조직하였다.

문 4. (가), (나)의 특징을 가진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옷은 흰색을 숭상하며, 흰 베로 만든 큰 소매 달린 도포와 바지를 입고 가족신을 신는다. (나) 부여의 별종(別種)이라 하는데, 말이나 풍속 따위는 부여와 많이 같지만 기질이나 옷차림이 다르다. - 『삼국지』 위서동이전 -
--

- ① (가)-혼인풍속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 ② (나)-제사장인 천군이 다스리는 소도가 있었다.
- ③ (가)-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는 12배로 배상하게 하였다.
- ④ (나)-단궁이라는 활과 과하마·반어피 등이 유명하였다.

4. 정답 : ③

(가) 국가는 부여, (나) 국가는 고구려이다.

③ 부여에는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에는 물건 값의 12배를 배상하게 하는 1책 12법이 있었

다.

① 장래에 혼인할 것을 약속하면, 여자가 어렸을 때에 남자 집에 가서 성장한 후에 남자가 예물을 치르고 혼인을 하는, 일종의 매매혼인 민며느리제는 옥저의 풍속이다. ② 삼한과 관련 있는 내용이다. 이 지문과 관련해서 최근 학계에서는 천군은 국읍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예전 학설을 바탕으로 출제자가 교과서 지문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으로 보인다. ④ 특산물로 단궁이라는 활과 과하마, 반어피 등이 있었던 국가는 동예이다.

문 5. 다음 글을 지은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 | |
|--|
| (가) 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문(朗慧和尚白月葆光塔碑文)
(나) 대견훤기고려왕서(代甄萱寄高麗王書)
(다) 낭원대사오진탑비명(郎圓大師悟眞塔碑銘) |
|--|

- ① 골품제를 비판하고 호족 억압을 주장하였다.
- ② 국립 교육기관인 태학(太學)에서 공부하였다.
- ③ 신라뿐만 아니라 고려왕조에서도 벼슬하였다.
- ④ 당나라에 유학하여 빈공과(賓貢科)에 급제하였다.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5. 정답 : ④

(가) 「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문」을 저술한 인물은 최치원, (나) 「대견훤기고려왕서」를 저술한 인물은 최승우, (다) 「낭원대사오진탑비명」을 저술한 인물은 최언위로, 모두 신라 하대의 6두품 출신이다.

④ 최치원, 최승우, 최언위는 신라 하대 6두품 출신으로, 골품제의 신분적 한계로 인해 당에 유학하여 당의 빈공과에 합격하였다.

① 6두품은 골품제를 비판하였으나, 이부 6두품은 호족 세력과 결탁하여 새로운 국가를 세우는데 앞장섰다. ② 신라는 통일 이후 신문왕 대 국립 교육 기관인 국학을 설립하였고,景德왕 대 한화정책의 일환으로 태학감으로 개칭하였다. 이후 혜공왕 대 다시 국학으로 환원되었다. 따라서 신라 하대 이후의 국립 교육 기관은 국학이라 볼 수 있다. 한편 당나라의 국립 교육기관은 국자감으로 태학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이들이 태학에서 공부했다는 기록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면에서 출제자는 고구려의 태학(太學)을 염두에 둔 듯 하다. ③ 최치원은 진성여왕에게 시무 10여조를 올렸으나 시행되지 않자 은둔 생활을 하였다. 최승우와 최언위는 모두 반신라적인 모습을 지녔으나, 최승우는 견훤의 책사로 활약하였고, 최언위는 왕건의 책사로 활약하며 고려 왕조에서도 벼슬하였다.

문 6. 다음 밑줄 친 ‘대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엔닌은 대사의 어진 덕을 입었기에 삼가 우러러 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미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 당나라에 머물러 왔습니다. 부족한 이 사람은 다행히도 대사께서 발원하신 적산원(赤山院)에 머물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경(感慶)한 마음을 달리 비교해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입당구법순례행기』 -

- ① 법화원을 건립하고 이를 지원하였다.
- ② 당나라에 가서 서주 무령군 소장이 되었다.
- ③ 회역사, 건당매물사 등의 교역 사절을 파견하였다.
- ④ 웅주를 근거지로 반란을 일으켜 장안(長安)이라는 나라를 세웠다.

6. 정답 : ④

제시된 사료는 일본 승려 엔닌의 『입당구법순례기』로, 밑줄 친 ‘대사’는 장보고이다. 장보고는 중국을 순례하던 중에 법화원에서 신세를 진 일본의 승려 엔닌에게 일본으로 돌아갈 배편을 구해 준 적이 있었다.

④ 무열제였던 웅천주 도독 김헌창은 아버지 김주원이 원성왕에 밀려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불

만을 품고 헌덕왕 14년(822년) 웅주(공주)에서 난을 일으켜 장안국을 세웠다가 진압되었다.

① 장보고는 당시 신라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산동성에 법화원이라는 절을 짓고 이곳을 무역의 거점으로 삼았으며, 아울러 신라인의 친목과 단결, 안녕을 꾀하는 정신적 위안처로 만들었다. ② 장보고는 일찍이 당나라 서주(徐州)에 건너가 무령군 소장이 되었다. ③ 장보고는 당나라에 대해서는 건당매물사, 일본에 대해서는 회역사라는 이름 아래 교역사절단을 파견하고 그의 무역선을 교관선이라 일컬었다.

문 7. 다음 (가)에서 이루어진 합의제도를 시행한 국가의 통치체제로 옳은 것은?

호암사에는 (가) (이)라는 바위가 있다. 나라에서 장차 재상을 뽑을 때에 후보 3, 4명의 이름을 써서 상자에 넣고 봉해 바위 위에 두었다가 얼마 후에 가지고 와서 열어 보고 그 이름 위에 도장이 찍혀 있는 사람을 재상으로 삼았다.

- 『삼국유사』 -

<보기>

- ㄱ. 중앙정치는 대대로를 비롯하여 10여 등급의 관리들이 나누어 맡았다.
- ㄴ. 중앙관청을 22개로 확대하고 수도는 5부, 지방은 5방으로 정비하였다.
- ㄷ. 16품의 관등제를 시행하고, 품계에 따라 옷의 색을 구별하여 입도록 하였다.
- ㄹ. 지방 행정 조직을 9주 5소경 체제로 정비하였다.
- ㅁ. 중앙에 3성 6부를 두고, 정당성을 관장하는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ㄹ, ㅁ

7. 정답 : ②

(가)는 정사암으로, 귀족 합의 기구로 정사암 회의가 있었던 국가는 백제이다.

ㄴ. 백제는 6세기 성왕 때 중앙 관청을 22부로 확대 정비하고, 수도를 5부로 지방을 5방으로 정비하였다. ㄷ. 백제는 3세기 고이왕 때 6좌평 16관등제가 완비되었고, 관등에 따라 자·비·청색의 3색 공복제를 실시하였다.

ㄱ. 고구려는 수상으로 대대로가 있었고, 각 부의 관료 조직을 흡수하여 10여 관등을 두었다.

ㄴ. 전국을 9주로 나누고 지방의 주요 지역에 5소경을 설치한 것은 통일 신라이다. ㄹ. 당의 3성 6부제를 수용하여 정당성, 중대성, 선조성을 두었고 정당성의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한 국가는 발해이다.

문 8. 다음 글을 쓴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오늘날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백성에게서 건어들이는 데만 급급하고 백성을 부양하는 방법은 알지 못한다. …… ‘심서(心書)’라고 이름 붙인 까닭은 무엇인가? 백성을 다스릴 마음은 있지만 몸소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 붙인 것이다.

- 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전설을 주장하였다.
- ② 『농가집성』을 펴내 이양법 보급에 공헌하였다.
- ③ 홍역 관련 의서를 종합해 『마과회통』을 저술하였다.
- ④ 조선시대의 역사를 서술한 『열조통기』를 편찬하였다.

8. 정답 : ③

제시된 사료는 정약용의 『목민심서』의 서문이다.

③ 정약용은 마진(홍역)에 대한 연구를 진전시키고 이 분야의 의서를 종합하여 『마과회통』을 편찬하였으며, 박제가와 함께 종두법을 연구하여 실험하기도 하였다.

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전설을 주장한 인물은 김석문이다. ② 17세기 중엽에 신숙은 『농가집성』을 펴내 벼농사 중심의 농법을 소개하고, 이양법의 보급에 공헌하였다. ④ 『열조통기』는 안정복이 태조에서 영조 대까지의 일을 편년체로 서술한 역사서이다.

문 9. (가)와 (나)의 인물에 대한 <보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교(敎)를 배우는 이는 대개 안의 마음을 버리고 외면에서 구하고, 선(禪)을 익히는 이는 인연을 잊고 안의 마음을 밝히기를 좋아하니, 모두 한쪽에 치우친 것으로 두 극단에 모두 막힌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나)는 “정(定)은 본체이고 혜(慧)는 작용이다. 작용은 본체를 바탕으로 존재하므로 혜가 정을 떠나지 않고, 본체가 작용을 가져오게 하므로 정은 혜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였다.

〈보기〉

ㄱ. (가)와 (나)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교종과 선종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ㄴ. (가)와 (나)는 지방 호족과 연합하여 신라 정부의 권위를 약화시켰다.

ㄷ. (가)는 불교와 유교 모두 도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같다는 유·불 일치설을 주장하였다.

ㄹ. (나)는 수선사 결성을 제창하여 불교계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나. 지방 호족과 연합하여 신라 정부의 권위를 약화시킨 것은 신라 하대의 선종 승려들에 대한 내용으로, 고려 중기의 의천, 지눌과는 관련이 없다. 드. 유교와 불교가 같은 도를 추구한다는 유불일치설을 주장하여 성리학 수용의 기반을 마련한 승려는 혜심이다.

문 10.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대외 무역이 발전하면서 예성강 어귀의 벽란도가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했으며, 대식국(大食國)으로 불리던 아라비아 상인들도 들어와 수은·향료·산호 등을 팔았다.

- ① 해동통보와 은병(銀瓶) 같은 화폐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 ② 인구·토지면적 등을 기록한 장적(帳籍, 촌락문서)이 작성되었다.
- ③ 개성의 송상은 전국에 송방(松房)이라는 지점을 개설해서 활동하였다.
- ④ 지방 장시의 객주와 여각은 상품의 매매뿐 아니라 숙박·창고·운송 업무까지 운영하였다.

10. 정답 : ①

고려 시대에는 예성강 하구의 벽란도가 국제 무역항으로 성장하고, 아라비아 상인들이 내왕하였다.

① 고려 숙종 때는 삼한통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등 동전과 활구(은병)라는 은전을 만들었으나, 널리 유통되지는 못하였다.

② 인구와 토지 면적, 수목 수 등을 기록한 민정문서는 신라에서 작성한 것으로, 695년(신라 효소왕 4년) 설, 755년(신라 경덕왕 14년) 설, 815년(신라 헌덕왕 7년) 설, 875년(신라 헌강왕 1년) 설 등이 있으며, 그중 695년 설과 815년 설이 유력하다.

③, ④ 사상(私商)이 성장하여 개성의 송상이 전국에 송방을 설치하여 인삼을 거래하고, 지방 장시 중에서도 포구를 중심으로 발달한 객주와 여각이 상품의 매매, 숙박, 창고, 운송 업무를 담당한 것은 조선 후기이다.

문 11. 조선시대 도성 한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복궁 근정전의 이름은 정도전이 지었다.
- ② 경복궁의 동쪽에 사직이, 서쪽에 종묘가 각각 배치되었다.
- ③ 유교사상인 인·의·예·지 덕목을 담아 도성 4대문의 이름을 지었다.
- ④ 도성 밖 10리 안에는 개인의 무덤을 쓰거나 벌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였다.

11. 정답 : ②

② 경복궁의 위치는 한양의 북쪽 북악산 기슭으로, 풍수지리설에 입각하여 주산(主山)인 북악산 바로 아래에 자리하고 있다. 궁의 전면으로 넓은 시가지가 전개되고 그 앞에 안산(案山)인 남산이 있으며 내수(內水)인 청계천과 외수(外水)인 한강이 흐르는 명당(明堂)이다. 궁의 동쪽에 종묘(宗廟)가 있고 궁의 서쪽에 사직단(社稷壇)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중국 고대부터 이어져 오던 도성의 건물 배치 기본 형식인 좌묘우사(左廟右社)에 따른 것(임금이 앉던 자리의 방향을 기준으로 임금의 왼쪽인 경복궁의 동쪽에 종묘, 오른쪽인 서쪽에 사직단을 배치)이다.

① 정도전은 개경에서 한양으로 천도하는 과정을 비롯해 현재의 경복궁 및 도성 자리를 정하였고, 수도 건설 공사의 총책임자로 임무를 수행하였다. 수도 건설이 마무리된 후에는 경복궁을 비롯한 성문의 이름과 한성부의 5부(部) 52방(坊) 이름도 지었다. ③ 한양의 도성 4대문은 유교의 오상(五常)인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에 의해 동쪽에 홍인지문, 서쪽에 돈의문, 남쪽에 숭례문, 북쪽에 숙정문을 두었고 중앙에 해당하는 곳에 보신각을 두었다. ④ 한양의 성저십리(城底十里)는 성벽으로부터 사방 10리 되는 한계선까지를 가리키는데, 이 지역 내에는 산림과 풍치의 보호를 목적으로 암장과 벌목·채석이 금지되었다.

문 12. 밀줄 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왕이 말했다. “나는 일찍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여러 해의 평균을 파악하고 답험(踏驗)의 폐단을 영원히 없애려고 해왔다. 신하들부터 백성까지 두루 물어보니 반대하는 사람은 적고 찬성하는 사람이 많았으므로 백성의 뜻도 알 수 있다.”

- ①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조세를 차등 징수하였다.
- ② 풍흉에 상관없이 1결당 4~6두를 조세로 징수하였다.
- ③ 토지 소유자에게 1결당 미곡 12두를 조세로 징수하였다.
- ④ 토지 소유자에게 수확량의 10분의 1을 조세로 징수하였다.

12. 정답 : ①

제시된 자료의 밀줄 친 ‘이 제도’는 공법이다. 조선은 건국 당시 전세 운영은 토지를 3등급으로 나누고, 해당 연도의 작황에 따라 생산량의 1/10을 수취하는 답험손실법(踏驗損實法)이 운영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답험손실법은 매해 관리를 파견해야 하는 행정상의 번거로움이 있었고, 또한 국가의 조세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리하여 세종

대에 각 토지별로 고정된 세액을 납부하는 세금 제도를 기획하였는데 그것이 공법이였다. 이러한 공법은 세종 초기부터 논의가 있었는데, 1430년에 전국적으로 위로는 고관부터 아래로는 농민에 이르기까지 18만 명에게 설문(設問)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여론 조사를 바탕으로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다각도로 시행 가능한 방안을 입안하고 토론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1444년(세종 26년) 공법이 확정, 발표되었다.

- ① 공법은 토지를 6등급으로, 해당 연도의 작황(作況)을 9등급으로 구분하여 1결당 생산량의 최대 20두에서 최소 4두까지 차등을 두어 조세를 징수하였다.
 ② 풍흉에 상관없이 1결당 4~6두를 조세로 징수한 것은 인조 대의 영정법이다. ③ 토지 소유자에게 1결당 미곡 12두를 조세로 징수한 것은 대동법이다. ④ 조선 건국 당시의 수취 체제에 대한 설명이다.

문 13. 다음 지시에 따라 실시된 제도로 옳은 것은?

왕이 양역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명령했다. “…… 호포(戶布)나 결포(結布) 모두 문제가 있다. 이제 1필을 줄이는 것으로 온전히 돌아갈 것이니 경들은 1필을 줄였을 때 생기는 세입 감소분을 보충할 방법을 강구하라.”

- ① 지조법을 시행하고 호조로 재정을 일원화하였다.
 ② 토산물로 징수하던 공물을 쌀이나 무명, 동전 등으로 통일하였다.
 ③ 황폐해진 농지를 개간하도록 권장하고 전국적인 양전 사업을 시행하였다.
 ④ 일부 양반층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주고 군포 1필을 납부하게 하였다.

13. 정답 : ④

영조는 양인에게 부과되었던 군포의 액수를 줄여 주는 ‘균역법(1750)’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양인에게 부과되었던 군포의 액수를 1년에 2필에서 1필로 줄여 주었고, 삼소된 군포 수입의 보완책을 마련하였다.

④ 균역법 실시 이후 줄어든 군포 수입을 보완하기 위해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지역의 지주들에게 1결당 2두의 결작을 부과하였고, 지방의 일부 상류층에게는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주고 1년에 군포 1필의 선무군관포를 징수하였으며, 각종 잡세 수입을 균역청에 예속시켰다.

① 1884년 갑신정변 당시 개화당이 주장한 개혁정강 14개조의 내용 중 하나이다. ② 공납제와 관련된 대동법에 대한 설명이다. 대동법은 집집마다 부과하여 토산물을 징수하던 공물 납부 방식을 토지의 결수에 따라 쌀, 삼베나 무명,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였다. ③ 양전 사업은 부세 부과를 위해 농지의 실제 크기와 경작자 등을 파악하던 일체의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균역의 폐단을 줄이기 위한 균역법과는 관련이 없다.

문 14.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휴전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조선은 훈련도감을 설치해 군대의 편제를 바꾸었다.
 ② 조선군은 명나라 지원군과 연합하여 일본군에게 뺏긴 평양성을 탈환하였다.

- ③ 전세가 불리해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일본군이 철수함으로써 전란이 끝났다.
 ④ 첨사 정발은 부산포에서, 도순변사 신립은 상주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웠지만 패배하였다.

14. 정답 : ④

④ 1592년 왜군이 침략을 개시(1592. 4)하였고, 부산 첨사[僉使 : 수군첨절제사 (水軍僉節制使)] 정발과 동래부사 송상현이 이끄는 육군이 분전하였으나 부산진과 동래성에서 패하였다. 이러한 급보가 조정에 전해지자, 조정은 신립을 도순변사(都巡邊使), 이일을 순변사(巡邊使)에 임명하여 대비하였다. 하지만 이일이 상주에서 왜군 장수 가토 기요마사에게 패배하여 충주로 물러서고, 이일의 뒤를 이어 신립은 충주 탄금대에서 분패하였다.

①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때 선조가 몽진(蒙塵)을 갔다가 서울로 다시 돌아온 1593년(선조 26) 10월 설립되었다. 한편 왜군은 1593년 평양성 전투, 행주 대첩의 패전 이후 경상도 남부 해안까지 퇴각하였고, 자신들의 전열을 다시 가다듬기 위해 휴전을 제의하였다. ② 만주에 있던 이여송의 5만 명나라 군대가 조선 영내에 진입하면서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조·명 연합군은 왜군에 대한 반격을 시도하여 평양성을 탈환(1593. 1. 6 ~ 1. 9)하였고, 퇴각하는 왜군을 행주산성 등지에서 다시 격퇴하였다. ③ 1597년의 직산전투와 명량대첩 이후 전세가 불리해진 왜군은 이듬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본국으로 철수하였고, 이로 인해 7년간의 전쟁은 끝나게 되었다.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문 15. 우리나라 족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선후기에 부유한 농민들은 족보를 사거나 위조하기도 하였다.
 ② 조선초기의 족보는 친손과 외손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수록하였다.
 ③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족보는 성종 7년에 간행된 『문화류씨 가정보』이다.
 ④ 조선시대에는 족보가 배우자를 구하거나 봉당을 구별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15. 정답 : ③

③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족보는 1476년(성종 7년) 만들어진 안동 권씨 성화보(安東權氏成化譜)이다. 문화 유씨(文化柳氏)의 『가정보(嘉靖譜)』는 이보다 90년 뒤에 만들어진 족보이다.

① 조선 후기에는 부유한 농민들이 족보나 홍패를 위조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양반을 사칭하기도 하였다. ② 조선 초기의 족보는 친손과 외손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수록하였다. ④ 족보는 결혼 상대자를 구하거나 봉당(朋黨)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문 16. 다음 (가)~(라)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이 적용되던 시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가) 대통령의 임기는 7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나)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각각 선거한다.
 (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 중임할 수 있다. 단,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6년 임기의 대통령은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된다.

- ① (가)-남한과 북한은 함께 유엔에 가입하였다.
 ② (나)-판문점에서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다.
 ③ (다)-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정당등록이 취소되었다.
 ④ (라)-민족 통일을 위한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다.

16. 정답 : ③

제시된 자료의 (가)는 1980년 10월 전두환 정권 시기의 8차 개헌, (나)는 1948년의 제헌 헌법, (다)는 1954년의 2차 개헌(사사오입 개헌), (라)는 1972년 7차 개헌(유신 헌법)이다.

③ 사사오입 개헌은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위해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960년 3차 개헌 이전까지 적용되었다. 1956년 대선에서 평화통일론을 주장하던 조봉암이 이승만을 위협하자 이에 정권은 조봉암과 진보당 간부들을 수사하여 국가보안법 혐의 등으로 기소하고, 1958년 정당 등록을 취소하였다.

①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은 1991년 노태우 정권 시기의 사실이다. ② 판문점에서 휴전 협정이 체결된 것은 1953년 7월로서, 제2차 헌법(발췌 개헌)이 적용된 시기의 사실이다. ④ 7·4 남북 공동 성명에 대한 내용으로 유신 헌법 개정 이전의 사실이다.

문 17. 다음 자료가 조선 조정에 소개된 이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조선의 책략은 무엇인가? 중국과 친하고 [親中] 일본과 맺고 [結日] 미국과 연합해 [聯美] 자강을 도모하는 길 뿐이다.

- ① 육영공원(育英公院)을 설립해 서양의 새 학문을 교육했다.
 ② 임오군란이 일어나고 제물포조약이 체결되어 일본에 배상금을 지불하였다.
 ③ 개화파가 우정충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해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다.
 ④ 최익현은 일본과 통상을 반대하는 「오불가소(五不可疏)」를 올렸다.

17. 정답 : ④

제시된 자료는 일본 주재 청국 공사관의 참찬관 황쑤썬(황준헌)이 쓴 『조선책략』으로 1880년 제2차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 귀국하여 소개하였다.

④ 최익현이 일본과 통상을 반대하는 ‘오불가소’를 올린 것은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 직전의 사실이다.

① 육영공원의 설립은 1886년의 사실이다. ② 임오군란의 발생, 제물포 조약의 체결은 1882년의 사실이다. ③ 갑신정변의 발생은 1884년의 사실이다.

문 18.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상을 정립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의 건국정신은 삼균제도(三均制度)의 역사적 근거를 두었으니 선조들이 분명히 명한 바 수미균평위(首尾均平位)하야 흥방보태평(興邦保泰平)하리라 하였다. 이는 사회 각층 각급의 지력과 권력과 부력의 향유를 균평하게 하야 국가를 진흥하며 태평을 보유(保維)하려 함이니 홍익인간(弘益人間)과 이화세계(理化世界)하자는 우리 민족의 지킬 바 최고 공리(公理)임

- ① 한국독립당을 창당하였다.
- ②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이었다.
- ③ 제헌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 ④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주장하였다.

18. 정답 : ③

제시된 자료 1941년 11월 28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발표한 포고문 속에 들어 있는 「건국 강령」 원문으로 강령을 기초한 조소앙의 삼균주의(三均主義)에 바탕하고 있다.

③ 조소앙은 1948년 남북 협상 이전 김구, 김규식 등과 함께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남북 협상에 참여하였다. 하지만 남북 협상은 실체적인 성과를 얻지 못한 채 끝나게 되었고, 조소앙은 남북협상의 실패를 인정하였다. 서울에 다시 돌아온 뒤 조소앙은 김구 등과 갈등하게 되었고, 1948년 한국독립당을 탈당하게 된다. 이후 조소앙은 삼균주의 이념을 강령으로 삼으며 사회당을 창당하였고, 1950년 5·30 총선에서는 전국 최고 득표를 얻어 제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기도 하였으나, 1950년 6·25 전쟁으로 강제 납북되었다.

① 조소앙은 1930년 이동녕, 김구, 안창호 등의 민족주의 계열 인사들과 함께 한국 독립당을 창당하였다. ② 조소앙은 1943년에 한국 독립당의 집행위원장과 1945년에 임시 정부 외무부장을 역임하였다. ④ 조소앙은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제도와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호혜평등으로 민주국가 건설하자.”는 삼균주의를 제창하였다.

문 19. 시대별 교육문화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군정기 : 미국식 민주주의 교육과 6-3-3학제가 도입되었다.
- ② 1950년대 :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초등학교 의무교육제가 시행되었다.
- ③ 1960년대 : 입시과열을 막기 위해 중학교 무시험 추첨제가 도입되었다.
- ④ 1970년대 : 국가주의 이념을 강조한 국민교육헌장이 제정되었다.

19. 정답 : ④

④ 국가주의 이념을 강조한 ‘국민교육헌장’ 제정은 1968년의 사실이다.

① 광복 이후 미군정의 실시와 함께 식민지 교육 체제가 무너지고 미국식 교육이 도입되었다. 이때 6·3·3제의 학제를 근간으로 하는 교육 제도가 마련되었고, 홍익인간의 교육 이념

이 채택되었다. ② 이승만 정권기인 1948년 헌법과 교육법에 의거하여 의무교육의 실시 규정이 마련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초등학교의 의무교육이 시행되었다. ③ 박정희 정권기인 1968년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가 서울에서 처음 실시되었고, 1971년 전면 확대 실시되었다.

문 20. 다음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조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 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 한다.
제2조	일본 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 또는 일본 제국 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제3조	일본 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 ① 이 법령에 따라 특별 재판부가 설치되었다.
- ② 이 법령의 제정은 제헌헌법에 명시된 사항이었다.
- ③ 이 법령에 따라 반민족행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④ 이 법령은 여수·순천 10·9 사건 직후에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20. 정답 : ④

제시된 자료는 1948년 9월 제정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의 내용 중 일부이다.

④ 여수·순천 10·19 사건은 1948년 10월 19일의 사실이고, ‘반민족 행위 처벌법’의 제정은 1948년 9월 22일의 사실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다.

① 반민족 행위 처벌법 제정 이후 실효성을 위해 국회의원 10명으로 구성된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약칭 : 반민특위)를 구성하였다. 서울시 및 각 도에 조사부를, 군에 조사지부를 설치하였으며, 이를 재판할 특별 재판부와 특별 검찰부를 설치하였다. ②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친일파 처단을 요구하는 국민적 열망이 고조되어 1948년 8월 16일 헌법 제 101조에 의거, 국회에 반민족 행위 처벌법 기초 특별 위원회(반민기초특위)가 구성되고, 9월 22일 제헌 국회에서는 친일파를 처벌하여 민족의 정기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에서 법률 제3호 반민족 행위 처벌법(약칭 : 반민법)이 제정·공포되었다. ③ 반민특위는 활동 기간 동안 682건의 친일 행위를 조사하여 영장 발부 408건, 검찰 송치 559건, 기소 221건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조사받은 이들은 대부분 풀려났고, 재판이 종결된 것은 38건이었으며, 실형 선고는 12명에 그쳤으며, 그나마 이들 중 10명은 6·25 전쟁 이전에 석방되었다.